

'현우경' 이야기 (20)

스님이 된 아우

어떤 마을에 장사꾼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흠모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나이가 어려 결혼을 미루자고 얘기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상인들과 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얼마 후, 형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채로 상인들과 물건을 팔러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됐다. 형이 그렇게 떠난 지 몇 해가 흘렀다. 여자의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지나 결혼하기 어렵게 됐다. 여자의 아버지는 걱정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 결혼을 시키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 결혼을 시킬 수가 없구나."

여자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우를 불러

말했다.

"그대의 형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딸은 평생도록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우리 딸과 혼인 하도록 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형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제가 형이 마음에 두었던 여자와 결혼한다 말입니까?"

"하지만 내 딸이 평생 네 형만 기다릴 수는 없다."

여자의 아버지는 끈질기게 아우를 설득했지만, 아우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온 마을에 퍼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도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우리 형이 죽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여자의 아버지가 아우를 찾아왔다.

500년만에 출가한 사냥꾼의 업



삼화·강병호

"자네도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형만 기다리며 혼기도 놓쳐버린 우리 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대가 우리 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걸세."

아우는 고민 끝에 그의 딸을 아내로 삼기로 했다. 결국 아우와 여자는 결혼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아이를 갖게

쳐 버리고 여자는 아이까지 잃어 건강이 나빠져 있었다. 형은 아우가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한 것까지 모자라 그녀를 버리고 도망친 사실에 몹시 분개했다.

"내 동생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상금으로 500냥을 주겠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상금을 노리고 아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사냥꾼이 아우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다니던 중 좌선을 하고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 사냥꾼이 스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우와 닮아 있었다. 그때 아우의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

"어떻게 스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스님을 죽이지 않으면 500냥을 벌 수 없다."

사냥꾼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형이 고민에 빠져있는 사냥꾼을 발견했다.

"지금 뭐하고 있는가? 얼른 내 아우를 죽

여라."

사냥꾼은 결국 상금을 포기할 수 없어 스님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때 스님을 향해 날아가던 활은 되돌아 와 형에게 쏘였다. 결국 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형은 죽어서도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해 독벌레로 태어나 아우를 죽이려 했다. 독벌레가 된 형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독을 쏘아 아우를 죽였다.

이 사실을 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구는 과거에 사냥꾼이었다. 그는 세상에 온갖 짐승을 잡으려 했다. 그 사실을 안 프라데카 부처는 사냥꾼의 사냥을 막기 위해 짐승들을 쫓아버렸다. 이에 화가 난 사냥꾼은 프라데카 부처를 활로 쏘아 죽였다. 그 업으로 비구는 500년 동안 독으로 죽게 됐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도를 얻겠다는 서원을 해 이생에서는 비구가 될 수 있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판만 대장경 속 우화 22

-살을 찢은 어미 따오기-

구성-김흥민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3칸집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mm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록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8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플리프로필렌 자체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부가세 운송비 별도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²(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368